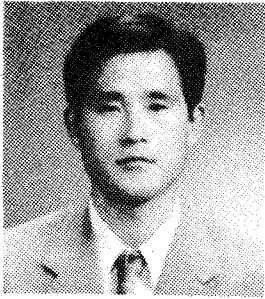


약이 되는 식물

② 달맞이꽃



유 중 호 <경산대 한방병원>

산야의 野生草本이 약재로 쓰이지 않는 것은 거의없지만 그중에서도 약용으로서 우리 생활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얼마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인들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달맞이꽃은 우리 주위 어디서나 쉽게 채취할 수 있고 또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사용에 따라서는 그 약효가 다양하면서도 아직까지 약초로서 잘 활용되지 않는데 연구 개발의 필요가 충분하다고 보며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 생약재로서 상당한 활용 가치가 전망되는 야생초이므로 여기에 소개하려고 한다.

달맞이꽃은 남아메리카 칠레가 원산지이며 歸化植物의 일종이다. 달맞이꽃은 2년생 초본으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양지바른 강가 쪽이나 산야의 빈터에서 흔하게 자라는 야생초이다. 달맞이꽃을 漢名으로 월하향(月下香), 야래향(夜來香), 월견초(月見草)라 하기도 하는데 달맞이꽃의 키는 50~100cm 가량으로 거의 가지가 없이 곧게 자란다. 잎은 좁은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자리하며 길쭉한披針形으로서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달맞이꽃이 지나는 특징으로는 저녁 해질무렵이 되면 피었다

가 다음날 해가 뜨면 시들어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월하향(月下香)이라 이름한 것 같다. 달맞이꽃의 개화기는 대체로 7,8월경이며 9,10월 가을철에 꽃이 피는 것도 있다. 현재까지 달맞이꽃에 대한 문헌적으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생약명은 월하향(月下香)으로 바늘꽃과에 속하며 꽃의 지방유속에 리놀산과 리놀렌산, 올레익산 등의 각종 酸性分이 함유되어 있으며, 종자에는 풍부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다. 달맞이꽃은 그 자체로 도시인들에게 觀賞用으로 개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만, 약용으로서 활용은 全草를 봄과 여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리고, 뿌리는 가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렸다가 잘게 썰어서 약용으로 사용한다. 약효로서 뿌리는 거풍습(祛風濕), 해열(解熱), 감모(減冒), 강근장골(強筋壯骨), 인후염(咽喉炎), 기관지염(氣管支炎) 피부염(皮膚炎)으로 쓰고, 종자는 볶아서 기름을 내는데 현대 성인병인 고혈압, 비만증 등에 효과가 있다는 설이 있어 앞으로 연구에 따라서는 성인병 예방에 주목되는 야생초이다.

달맞이꽃의 사용법은 말린 약제를 1회에 4~6g 씩 200cc 물로 달여서 복용 하기도 하며 피부염에는 생엽을 짓뭉어서 흉부에 붙이거나 또는 말린 약재를 분말로 빵아 기름에 개어서 바르면 잘 듣는다. 식용으로는 이른봄 어린싹을 캐어서 뜨거운물에 데쳐서 찬물로 우려낸 다음 나물로 해 먹기도 한다. 이와같이 달맞이꽃은 약용과 식용, 관상용으로 개발하여 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제원 유희비 건립

보제원이 있던 곳을 기리는 「보제원유희비」가 제기동 경동한약상가 내에 세워졌다.

경동한약상가 변영회(회장, 박찬영)는 지난 6월 14일 노승우 국회의원, 조우준 동대문구의회 의장, 변영회 간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제원유희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조선건국 초 왕명에 의해 설립된 보제원은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전통 한의술과 양약을 베풀어 새 삶과 희망을 주었던 救恤機關이며 제기골은 그러한 우리 선열들의 혼과 위업이 살아 숨쉬고 있는 감동적인 역사의 현장이지요.』 박찬영 회장의 설명이다.

이렇듯 뜻 깊은 장소에 경동한약상가가 자리잡아 전국 제일의 종합적, 전통적 기능의 한의약 유통 중심지가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

『이 곳은 위민사상과 참 삶을 구현하고자 했던 인술의 전당이며 민족 의약을 활용한 구원의 실천장이었으니 한의

약의 본고장이 되기에 필연적인 곳이라 할 만하다.』고 말하는 박회장은 『이러한 선열의 위대한 정신과 유훈을 받들어 우리시대 한약인이 갖추어야 할 실천 지표로 삼고자 「보제원유희비」를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경동한약상가는 해방이후 상권이 발전하면서 60년부터 강원·충청·경상·경기도 등에

서 채집, 생산되는 한약재들이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모여 들게 되면서 형성됐다.

이와함께 경동한약상가는 그동안 구전돼온 한의약의 치료방법 등 비상과 한의약 서적을 중심으로 공부해 온 사람들이 건재상회를 개설, 한약재를 판매 및 혼합·접약 등을 조제해 왔으며, 70년대 후반부터 현행법에 맞춰 한의원과 약국 등으로 변신함으로써 현재 전국 한약재 유통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 제일의 한의약 유통 중심지이다.



◇보제원이 있던 곳을 기리는 「보제원 유희비」가 제기동 경동한약상가 내에 세워졌다.



이 영 화 대리

삼도시호 재배지를 방문하여 본 결과 일찍 파종한 곳은 가뭄을 이겨내지만 늦게 파종한 곳은 발아가 되더라도 사한 곳이 많았다.

금릉지방은 가뭄피해가 극심했는데 총재배 능가 1백22가구 중 15가구가 대파했으며 파종시부터 실패한 능가가 많았다.

파종시 두둑을 높게 하고 피복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삼도시호 재배지를 다녀와서...

남는다.

인근지역인 상주군은 발아도 양호하고 성장률도 70~80%로 양호하다.

특히 상주군 화서면 지산리 황의찬씨 발은 다른 발 보다 두둑도 높게 하고, 협회에서 권장하는 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성장상태가 무척이나 좋았다. 벌써 1차 적심할 때가 된 것 같다.

황의찬씨는 지난해 단보당 1백5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다. 올해도 끝마무리(적심, 추비, 수확작업)를 철저히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문경지방 삼도시호 발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문경군 삼도시호 방문에는 가을을 완장리에 사시는 흥도 기씨가 69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동네 발을 안내해 주셔서 많은 고마움을 느낀다.

경북지역은 총 재배 면적 16만1천1백평, 재배능가 2백79가구이며,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30% 정도이다. 하루 빨리 비가 내려 피해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임명장 및 승인장 갱신발급 안내

- 본회 위상정립과 회세신장의 일환책으로 회원 여러분의 임명장, 승인장을 제 정비하여 발급기로 하였음.
- 이번 조치는 그동안 해임처리 되고도 승인장 및 간판을 제거하지 않고 본회 명의를 도용하고 있는 일부 면직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방편임.
- 따라서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적극 본협회 집행부의 업무 지침에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함.

다 음

- 가. 임명장 및 승인장에 부착할 증명사진 2매씩 발송하여 주실것(사진 뒷면에 소속 및 성명 기재 요망)
나. 각지부에서는 지역소장 및 공판장장의 "구" 승인장을 수거하고 "신규" 승인장에 부착할 사진을 집하하여 일괄적으로 본부에 발송시켜 주시기 바람.
다. 각지부 총무께서는 신규 회원 수첩(비망록) 제작에 필요하니 지부별 소장, 공판장장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신규승인장은 본 협회 집행부에서 작성하여 각 시·도별 지부회의시 수여기로 하겠음.